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영어 동사구 생략 유형 연구

Elliptical Types of English Verb Phrases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지 영

# 영어 동사구 생략 유형의 연구

Elliptical Types of English Verb Phrases

201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지 영

# 영어 동사구 생략 유형의 연구

Elliptical Types of English Verb Phrases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영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지 영

# 오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_\_\_\_\_ (인)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 머리말.....	1
II . 동사구 생략.....	2
1. 생략의 본질.....	2
2. 생략의 개념.....	2
3. 생략의 조건.....	6
III. 동사구 생략 선행연구.....	8
1. Bouton(1970) 이론.....	8
2. Jackendoff(1972) 이론.....	10
3. Potsdam(1997) 이론.....	12
3.1 생략에 관한 제약.....	12
3.2 생략에 관한 경험적 관찰.....	14
4. Hernandez(2006) 이론.....	16
4.1 통사적 의존성.....	16
4.2 문법적 의존과 공백.....	17
5. Kirsten Gengel(2007)의 이론.....	21
5.1 동사구 생략.....	21

5.2 허사공백.....	23
5.3 허사공백과 동사구 생략.....	25
6. 요약.....	27
IV. 동사구 생략 유형.....	27
1 .동사구 생략.....	27
2. 굴절동사구 생략.....	31
3. to 부정사의 동사구 생략.....	34
4. 부정어 not의 동사구 생략.....	36
5. 조동사에 의한 동사구 생략.....	40
V. 맺는말.....	44
참고문헌.....	45

# ABSTRACT

## Elliptical Types of English Verb Phrases

Oh Ji-Young

Advisor : Prof. Lee Nam Geun,Ph.D.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Verb Phrase Ellipsis is an important subject in this thesis, and the aim of this thesis can'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Ellipsis.

I will present conditions under which verb phrases are elided based on positive and negative examples. I will provide several scholars's theories about analysis of verb phrase ellipsis. They state anaphoric phenomenon and which part of a clause is omitted with syntactic, semantic, morphologic features.

Moreover I will provide various Elliptical Types -Factor that affect verb phrase ellipsis include: the distance between antecedent and ellipsis site, the syntactic relation between antecedent and ellipsis site, Auxiliary and VP deletion,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juncts. Building on these results, I will examine where in the generation architecture VP ellipsis should be located.

I'll start with description of Ellipsis,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research described in this thesis.



## I. 머리말

언어의 모든 활동은 가급적 간결성을 추구하므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상대간의 통사적, 의미적 이해를 기초로 생략가능하게 된다. 즉, 담화에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략의 지나친 허용은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자 청자 간의 의미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칫 문맥상의 암시가 없으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생략의 적당한 제약을 두어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 2장에서는 동사구 생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Bouton(1970)은 동사구 생략에 관한 규칙을 세우고 동일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관해 예를 들어 제시했고, Jackendoff(1972)는 동사구 생략을 의미적으로 접근하여 이론은 도출하였다. Eric Potsdam(1997)은 생략의 제약을 다루고, 형태적 동일성으로 인한 생략의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Ana Carrera Hernandez(2006)는 공백화 현상의 통사적 의존성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Kirsten Gengel(2007)은 동사구 생략과 허사공백을 비교, 대조 함으로써 동사구 생략의 제약을 제시하고 요약정리 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다뤘던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동사구 생략에 관한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생략이 일어난 문장과 문맥과 상황에 따라 완전한 문장으로의 복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이 외에도 동사구 생략의 허가 조건에서 to부정사의 동사구 생략을 간략하게 다루며, 부정어 not의 동사구 생략의 조건을 모든 부정어가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정어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문 부정어이어야 한다는 근거로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II. 동사구 생략

### 1. 생략의 본질

생략(ellipsis)은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의 의사소통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이다. 문장의 잉여성을 제거하는 것은 언어의 담화 표현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의미 전달에 있어서 명확성을 주기도 한다. 의사소통에서 화자와 청자 간에는 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 정보는 생략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생략은 생략된 요소에 대한 원래대로의 복원성을 필요로 한다. 즉, 본래의 단어나 생략된 단어는 반드시 언어적 또는 언어 외적 맥락으로부터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정확하게 복원 가능해야 한다.

생략은 선행문과 후행문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문장 내에 또는 문장 간에 응집(cohesion)을 강화시켜 언어 표현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이루기 위한 문법 장치이다.

### 2. 생략의 개념

우선 이 논문에서는 생략의 범위를 문법적 누락(grammatical omission)으로 한정하겠다. 즉, 'because'를 'cos'로 줄여 쓰는 등과 같은 어두 음절 탈락이나 'fluenza'를 'flu'처럼 줄여쓰는 단어의 탈락, 그리고 'don't'나 'I'll'과 같은 단축 현상은 이 논문에서 제외하겠다. 다만 생략과 유사한 개념인 삭제의 개념과 대응형식, 그리고 생략과 구별되어야 할 불완전한 문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a. John wants to go to the park.
- b. \*John wants John to go to the park.

변형생성문법<sup>1)</sup>에 의하면(1a)는 (1b)라는 기저 구조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

1)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던 난점을 타파하고,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언어 구조를 기술해야 한다는 N. Choamsky에 의해 제안 발달된 문법.

수 있으며 (1b)에서 동일 주어인 *John* 이 의무적으로 삭제되는 변형이 적용된다.<sup>2)</sup> 그러나 (1a)는 삭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목적어 요소가 부정사절로 시작되는 SVO구조를 지니고 있고 (1b)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삭제가 심층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과는 다르게 생략은 표층구조에서 발생하는 언어요소의 탈락현상을 의미하며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지 않는 선택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용형식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항목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대용 형식을 사용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 a. Is there going to be an earthquake in the future? The newspaper says so.  
       (so = there is going to be an earthquake in the future.)  
       b. Jack hasn't found a job yet. He told me so yesterday.  
       (so = that Jack hasn't found a job yet)  
       c.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ill deteriorate. Many father think so, but I believe not.  
       d. A: Has he failed?  
       B: I hope not.

예문 (2a,b)는 *so* 가 *that*절의 대용형식이 되는 경우이며 (2c,d)는 *not* 이 *that*절의 대용형식이 되는 경우이다.

생략에서 말하는 불완전한 문장이란 언어수행의 실수 (performance error)

---

2) 동일 명사구 생략 (Equi-NP DEletion) : 내포문의 구성요소는 모두 NP-Aux-VP로 되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for*~*to*와 같은 *Comp*로 시작되는 내포문의 경우에는 표면에 나타나는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층에서는 내포문이 주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변형(Equi NP Deletion)에 의하여 주어가 삭제된 후 축소되어 나타난 보문구조(reduced complements)로 보게된다

로 인해 생략이 발생한 문장으로 기억의 한계, 산만, 무관심, 무지 등의 원인이 있다. Sweet(1955)는 문법적 결합문의 관점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생략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에서의 생략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emptyset$  Had a good time, did you?
- b. (?) I think I like Tom, but I ...
- c. (?) You seem to be able to use ... very well.

예문 (3a)는 생략에 의해 주어와 없는 문장인데 반해 (3b), (3c)는 탈락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언어활동을 하는데 항상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 한 단어나 짧은 하나의 구가 문장이나 담화에 있어서 종종 화자나 청자 사이에 필요하거나 또는 기대되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 다음 (4)의 예를 보자.

- (4) A: Have you spoken to the doctor?
- B: Yes, I have (spoken to the doctor.)

위 대화문에서 (4A)의 문장을 (4B)에서처럼 생략하면 표현이 간결하게 되어 언어 경제상 효율적이 된다. 생략 현상은 완전한 문장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논항(argument)이 부족하거나 선행하는 절에서 이미 나타났던 논항 중 일부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어구가 완전한 형태의 문장과 똑같이 화자와 청자사이에 이해가 이루어 질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Jeperson(1933)은 생략 현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되어야 하고 생략된 항목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생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생략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의성

(ambiguity)이 초래될 경우 생략은 피해야 하며 생략된 항목에 대한 복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술하며 확실한 복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해되는 요소를 문장 내에서 누락시키는 것으로 생략을 정의하고 있다.

(5) a. He is rich, but his brother is not ( ).

b. It generally costs six shillings, but I paid only five ( ).

위(5)의 예는 Jeperson의 생략 정의에 따른 복원 가능성에 기준을 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의는 유일하게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의 약 생략(weak ellipsis) 경우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6) a. Thank you.

b. I owe you thanks.

c. I give you thanks.

(6a)는 (6b)와 (6c)처럼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복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약 생략(weak ellipsis)이라 정의된다. 약 생략은 언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구조적인 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Sweet는 생략에 대한 정의를 문법적인 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7) a. He speaks English better than I can speak English.

b. He speaks English better than I can.

예문 (7b)는 조동사 *can* 뒤에 *speak English* 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으므로 선행하는 문맥으로부터 생략된 동사 *speak English* 를 복원할 수 있다. Sweet는 이와 같은 문장에 한하여 생략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법적인 구조에만 초점을 둔 Sweet의 생략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예

문 (8b)가 왜 비문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8) a. Were you born in 1988?
- b. \*Yes, I was born.
- c. Yes, I was born in 1988.

(8b) 문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문장이지만 비문이 되는 이유는 정보의 가치 때문이다. 즉, 화자가 나누는 대화의 초점에 의해 *I was born* 은 *in 1988* 보다 정보가치가 낮은 것이므로 정보가치에 의해 정보 가치가 높은 요소가 정보 가치가 낮은 요소보다 먼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생략의 조건

Quirk(1985:861-862)는 생략의 조건을 반드시 선행문으로 부터 생략된 요소가 복원 가능 (Recoverable from context)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장의 표면구조에서 문장의 요소가 언제나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락된 요소가 문장 내에서나 문장의 경계를 넘어 언어적 맥락에서 의미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Quirk에 따르면, 생략 현상은 단어가 유일하게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그 문장으로 복원 가능한 단어를 첨가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생략 현상은 생략된 항목에 대해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순수한 표층구조로 설명되고 있다. 또 Quirk은 생략이 일어난 문장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완전한 문장으로의 복원이 다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 (9) 생략 복원 조건
- a. 생략된 요소는 반드시 복원이 가능하다.
- b. 생략이 발생한 구조는 불완전하다.
- c. 생략된 요소의 복원은 생략이 일어난 문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낸다.

- d. 생략된 요소는 구조적 상황적 문맥에서 라기보다는 이웃해 있는 문맥으로부터 복원이 가능하다.
- e. 생략된 요소는 선행문과 같은 요소이다.

다음 문장을 (9)의 조건에 따라 분석해 보자.

(10) A: Have you been swimming?

B: Yes, I have been ( ).

(11) She rarely sings, so I don't think she will ( ) tonight.

(10)의 대화에서 문장 B의 복원 가능한 요소는 *swimming* 이며, 예문 (11) 역시 *sing* 으로 복원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는 들어갈 수 없다.

한편 생략의 복원은 언어 외적인 담화 사용이나 언어 사용에 대한 화용론적인 상황에서도 복원이 가능하다.

(12) Keep (the hot iron) out of the reach of the children.

(Looking at the hot iron on the table)

(13) A: (Have you) Got the tickets?

B: (I) Haven't got the tickets yet.

예문 (12)의 상황은 뜨거운 다리미를 보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다. (13)역시 화자와 청자 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용지식과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략이 일어났다. 이는 전후 관계의 상황이나 이해 속에서만이 생략의 의미가 설명될 수 있다.

Chomsky(1965)에 따르면 생략의 잘못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생략의 조건으로 생략된 요소가 본래의 위치를 찾아 복원되었을 때 의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생략어 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생략의 조건을 생략 요소의 복원가능성에 두고 있는데 표층 구조상에 나타난 요소들 중에서 동일한 표현이 둘 이상이 있으면 반복되는 요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생략 요소의 동일성 조건에 의한 것이다.

### III. 동사구 생략 선행연구

#### 1. Bouton(1970) 이론

VPD변형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확한 규칙을 세운 사람은 Bouton(1970)이다. Akmajian & Wasow (1975)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칙을 세우고 있다.

(14) VP Deletion (optional)  
 SD : X-VP-Y-VP-Z  
       1  2  3  4  5  
 SI : 1  2  3  ∅  5  
       Condition : 2=4

여기서 조건 “2=4” 는 identity condition으로서, 어떤 동사구가 삭제될 수 있으려면 문장 내에서 통사적으로 동일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보면 동일성의 조건에서 동일성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a. John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surely peter should ∅ .  
       [∅=understand the situation]  
       b. Bob entered the competition and Paul may ∅ .  
       [entered the competition]  
       c. Peter is complaining about the noise, but John won' t ∅ .  
       [∅=complain about the noise]



d. John hasn't met my brother yet, but (he) will  $\emptyset$  soon.

[ $\emptyset$ =meet my brother]

e. John may be questioning our motives, but Peter hasn't  $\empty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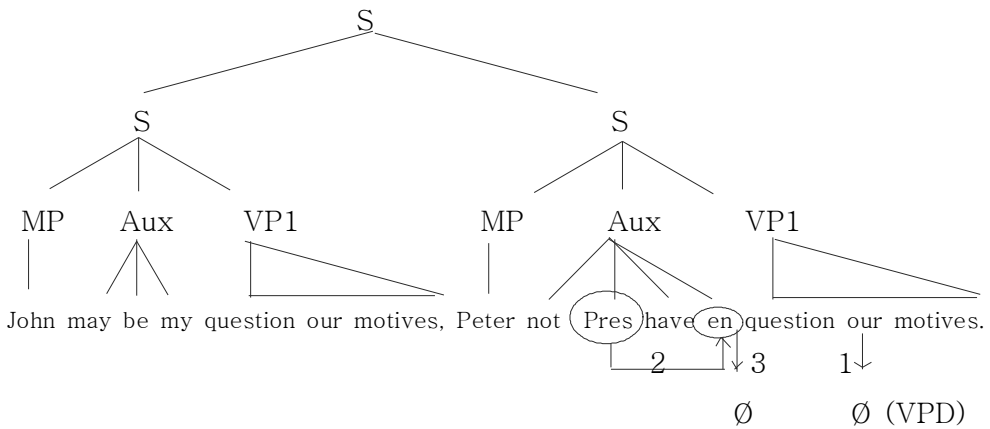
[ $\emptyset$ =questioned our motives]

(16) a. \*Paul denied the charge, but the charge wasn't  $\emptyset$  by his friends. [ $\emptyset$ =denied]

b. \*John had observed many of the enemy's soldiers, but hadn't been  $\emptyset$  by them [ $\emptyset$ =observed]

(15)의 예에서 보면 동사 시제의 차이에서 오는 접사의 서로 다른 동일성의 조건에서 무시되어도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16a)와 (16b)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16a)와(16b)의 비문법성은 설명할 수 없다.

(17)



동일성이 조건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다음 (18)에서 나타나는 ambiguity를 어떻게 설명 하느냐 하는 것이다.

(18) John scratched his arm and Mary did too. (Ross 1967 :189)

위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Mary* 가 *John* 의 팔을 껴 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Mary* 가 자기 팔을 껴 었다는 것이다. Ross(1967,1969)는 순전히 변형에 의존해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동사구 삭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동일성의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Mary* 와 *John* 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sup>3)</sup>

## 2. Jackendoff(1972) 이론

Jackendoff의 이론은 어떻게 하면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19) Fred got SALLY to kiss him, but SUE refused to.

(20) Fred got SALLY to kiss him, but SUE refused to kiss him.

(18)의 의미해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Sue* 가 입 맞추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Fred* 라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에서 두 번째로 쓰인 *him* 이 접속사 *but* 앞에 있는 *him* 과 공지시 관계에 있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19)가 (20)에서부터 동사구 삭제를 거쳐 도출되었다고 본다면 (19)의 완전한 의미해석을 위해서 공지시 관계 확인이 동사구 삭제 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공지시 관계 확인은 모든 변형이 적용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동사구 삭제는 해석이론과 병존할 수 없다.

Jackendof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19)의 오른쪽 절에서 동사구가 생략된 자리에 empty node를 설정하고 pronominalization과 흡사한 해석규칙 VP-anaphor를 만들었다

---

3) 이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동일성을 Ross는 Sloppy Identity라고 하였다.

(21) VP-anaphor

Associate with  $VP^2$  the semantic representation of  $VP^1$ if.

(a)  $VP^2$  is  $\Delta$  ; and

(b)  $VP^2$  does not both precede and command  $VP^1$

여기서 empty node는 통사적으로는 여타의 다른 node와 똑같이 취급되며 음운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이 empty node가 의미해석을 받지 못하면 이 문장은 해석되지 않는 node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미론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21)의 규칙에 따라 (19)의 의미해석을 위하여 (19)의 첫 번째 절의 구조를 나타내 보이면 (22)과 같이 그려진다. (23)은 (22)의 의미표시(semantic representation)이다.

(22) [s Fred got Sally [s $\Delta^1$ to[vp kiss him]]].

(23) Functional Structure :

Get (FRED), SALLY, (KISS( $\Delta^1$ ,HIM))

Table of coreference

$\Delta^2$ -coref him (reflexivization, 1st cycle)

Sally coref  $\Delta^1$ ((complement, 2nd cycle)

Fred coref him (Pronominalization,2nd cycle)

(19)의 두 번째의 구조는 (24)와 같다. 그리고 VP-anaphora가 적용되기 전의 의미표시가 (24)이다.

(24) Sue refused [s [Np $\Delta^2$ ]to[VP $\Delta^3$ ]]

(25) functional structure

REFUSE(SUE, f(s $\Delta^2$ ))

Table of coreference

Sue coref  $\Delta^2$ (complement subject, 2nd cycle)

여기서 미정의 함수  $f$ 는  $\Delta^2$ 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동사와 문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에 (25)에 VP-anaphor를 적용할 수 없다면 (25)는 의미표시에 대한 적절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동사구 *kiss him* 을 VP<sup>1</sup>, 그리고  $\Delta^3$ 을 VP<sup>2</sup>로 볼 수 있기 때문에 VP-anaphor를 적용하면 (25)의  $f$ 대신에 KISS( $\dots$ , HIM)을 대치하게 되고, 뿐 만 아니라 (23)의 table of coreference에서 *him* 을 가리키는 부분을 바꾸어 넣을 수( $\Delta^2$ 를 바꾸어 넣으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해독(reading)을 얻게 된다.

(26) Functional Structure

REFUSE (SUE, (KISS( $\Delta^2$ , him)))

Table of coreference :

$\Delta^2$ -coref him

sue coref  $\Delta^2$

Fred coref him

마지막으로 noncoreferentiality rule이 양쪽 절에 적용되어 table of coreference를 모두 채워 넣게 된다. 그러면 (19)의 올바른 해독을 얻어 낼 수 있다.

### 3. Potsdam(1997)의 분석

#### 3.1. 생략에 관한 제약

Potsdam(1997)은 동사구 생략의 가능성에 관한 언어 형태상의 영향을 조사했다. 동사구 생략은 동사구 구성이 담화에서 다른 동사구와 동일성의 전제하에 누락되어진 과정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27)을 살펴보면, 명백한 동

사구와 선행사가 있으며, 해석적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동사구를 대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사는 괄호로 묶여지며 뚜렷이 나타난다. Potsdam은 PF (Phonological Form)에서 동사구 생략을 삭제로 다뤘지만 LF (Logical Form)로 인한 동사구 생략의 평행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이 가설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 (27) a. Joe will [VP taste the food] if Mikey does ~~taste the food~~.  
 b. Elvis has been sighted at DisneyLand! So, what famous celebrity ~~hasn't been sighted at DisneyLand?~~  
 c. Matt is moving to Finland and Sophie might also be ~~moving to Finland~~.

동사구의 구조적 위치에 관한 생략에는 수많은 제한이 있으며, 선행사와 동사구사이에 유지해야만 하는 동일성도 있다. Potsdam의 논문은 동일성의 특별한 양상을 조사했고, 두 동사구의 형태 사이에서 형태학적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허가되는지를 나타냈다. 동사구 생략의 예를 살펴보면 (27)은 완전한 형태적 동일성을 보임으로 문법적인 예를 제시한 반면 (28)은 형태적 동일성이 불완전함으로 비문법적이다.

- (28) a. \*I am confused about ellipsis and you will ~~be confused about ellipsis~~ too.  
 b. \*Chris has been to Rome and his wife might ~~have been to Rome~~ as well.

Potsdam이 주장하는 명백한 문제점들은 생략 목적에 관한 동사구의 동일성에서 굴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왜 예문 (28)은 비문법적인지이다. 그 해답으로 정형 조동사는 각각의 경우에 동사구 V 에서 I로 순차 오름 되고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구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제 (28)은 비문법이 되는 것이다. Potsdam은 Warner(1985)로부터 경험적인 관찰

을 통해 동사구 생략과 동사적 형태의 상호작용을 제시했다.

### 3.2. 생략에 관한 경험적 관찰

동사는 6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 현재 단수, 현재 복수, 원형, -en 또는 -ing 형태이다. 근본적 경험의 의문은 이 형태들 중 동사에 의한 핵 동사구가가 서로 다른 형태에서 동사가 이끄는 핵 동사구에 대해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떠한 제한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제한이 선행사의 동사 형태와 동사구 사이의 형태적 동일성이 존재하는지의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Potsdam은 Warner의 철저한 경험적 연구를 자신이 시작해야 할 기준으로 삼았다. 이 데이터를 통해, Warner는 생략된 동사구의 문두에 좌우되는 동사 형태 사이에서 동일성의 두 가지 패턴들을 식별했다. 하나는 주 동사의 행동양식 이고 다른 하나는 조동사에 관한 설명이다.

주 동사에 의해 동사구 핵이 생략되었을 때, 형태적 동일성 요구는 그것과 동사구 선행사 사이에서 강요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제 (29)에서 설명되고 동사구가 완벽히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동사구 선행사의 주 동사는 형태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29a)에서 과거 시제 형태 *fell* 은 원형 *fall* 을 선행한다. Warner는 수동이든 능동이든 태는 모든 조합이 가능한 조합에 걸쳐 유지된다고 진술했고 (29)에서 보여진 것처럼 완벽한 동일성이 허용된다.

- (29) a. Jack [VP *fell* down ] and Jill did ~~fall~~~~down~~ too.
- b. I didn't touch the TV set, but Percy might have ~~touched~~  
          the ~~TV~~-set.
- c. If you haven't told them yet, you really should ~~tell~~~~them~~.
- d. Are they arguing? Yes, they always do ~~argue~~.

(30)은 Pullum과 Wilson(1977)의 제안된 관찰을 요약한 것이다.

- (30) Warner의 주동사 일반화 (Warner's Main Verb Generalization)  
주 동사에 의해 동사구 핵이 생략 된 경우 그것의 선행사로서 동일한 형태적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동사 have와 be의 형태는 흥미롭게도 더 복잡하다. 여러 작품들은 조동사의 동사구 핵 사이에서 불완전한 형태적 동일성이 존재할 때 생략은 의미가 없어지거나 비문법적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 (31) a. (\*)He may [be thrashed by his father ]. In fact, from the yells, I think he is ~~being thrashed by his father~~.  
b. (\*)He simply won't be honest about himself. He never has ~~been honest about himself~~ yet.  
c. (\*)John is happy and Mary soon will ~~be happy~~.  
d. (\*)John has probably kissed his grandmother goodnight, but Paul won't ~~have kissed his grandmother goodnight yet~~.

주 동사의 결과는 두 동사구 사이에 형태적 동일성이 존재 한다면 완전히 문법적이다. (32)의 예문은 두 동사구가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생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32) a. John will be happy about the results and Mary will ~~be happy about the results~~ too.  
b. Elvis has been sighted at Disneyland! So, what famous celebrity hasn't ~~been sighted at Disneyland~~?  
c. He is being audited by the IRS because his company is ~~being audited by the IRS~~.

(33)은 Warner의 조동사 일반화를 서술했다. 다음의 일부로 동사 형태를

분석하며, Warner의 (30)와 (33)의 두 가지 관찰로 호환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 (33) Warner의 조동사 일반화 (Warner's Auxiliary Verb Generation)  
조동사에 의해 동사구 핵이 생략된 경우 조동사는 반드시 선행사  
로서 동일한 형태적 양식을 필요로 한다.

#### 4. Hernandez(2006)의 분석

##### 4.1. 통사적 의존성

공백화로의 접근은 William(1997) 분석 방식으로의 확장이고 후에 Ackema & Szendroi(2002)에 의해 추가로 개발되었다. (34)는 공백화의 기본적인 예제이다

- (34) [I will buy a house]i and [he  $\emptyset$  sell his flat]i. ( $\emptyset$ =will)

Williams는 양가 핵 투사의 결과로 공백화를 정의했고, 양가 핵심어의 두 번째 핵은 첫 번째에서의 영 조응을 나타냈다. (35)의 예문처럼 영 핵심어의 존재는 자체적 구조 조정에 의해 허가되어진다.

- (35) a. John will eat pizza and Mary $\emptyset$  drink wine ( $\emptyset$  =will)  
b. It is ok to eat fish on Fridays and  $\emptyset$  meat on  
Wednesdays ( $\emptyset$  =eat)  
c. That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and  $\emptyset$  the Moon  
revolves around the Earth are well-established facts  
( $\emptyset$  =that)



영 핵심어는 Ackema & Szendroi(2002)가 취한 예제 (3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차례로 추가 생략을 허용한다.

(36) John gave Mary a book today and  $\emptyset$ <sub>1</sub>  $\emptyset$ <sub>2</sub> a record yesterday.

( $\emptyset$ <sub>1</sub> = gave;  $\emptyset$ <sub>2</sub> = Mary)

Williams와 Ackema & Szendroi는 추가 생략이 공백화가 일어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백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목적어가 나타남으로써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예제 (37)을 살펴하자.

(37) \*John gave Mary a book today and bought  $\emptyset$  a record yesterday.

( $\emptyset$  = Mary)

공백화에 의존적이고 핵어의 의존 생략을 포함하는 유형을 Ackema & Szendroi는 ‘종속생략’이라 만들어 냄으로서 공백화와 종속생략을 구별하였다. 이 논문에서 역시 공백화와 종속생략의 구별을 받아들이지만 정형동사 핵어와 결여된 공백화만을 다룰 것이다.

현재 공백화의 접근방식은 선행사만을 의존하는 영 동사 핵어의 투사로 간주되고 있다. 영 핵어는 어휘항목과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 특징은 입증될 수 없다. Chomsky는 출력은 어휘항목의 특성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소통 수준은 어휘적 특성 배열 그 이상은 구성하고 있지 않다.

공백화의 접근 방식은 표면적 공백화 현상으로서 전통적으로 접근성과 비접근성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공백화는 그것의 선행사와 연쇄를 형성해야만 하므로 공백과 선행사 사이에 상대적 최소성 효과를 초래한다.

Hernandez는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 결합된 구조에서만 공백화 현상을 다룬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4.2. 문법적 의존과 공백

Hernandez는 공백화가 왜 문법적 의존성으로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에 전념했다.

(38) I will buy the car and you  $\emptyset$  sell the motorbike.

( $\emptyset$  = will)

(39) I brought the car and she  $\emptyset$  the motorbike.

( $\emptyset$  = brought)

Koster(1987)와 Neeleman & van de Koot(2002)는 문법적 의존으로서 간주되는  $\emptyset$ 와  $\mathcal{B}$ 의 관계를 지적했고 그것은 다음 네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진다.

(40) 공백화 현상의 문법 의존성 특징

- a. 종속은 반드시 선행사를 취해야 한다.
- b. 종속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내에서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
- c. 각각의 종속 고유의 선행사를 취해야 한다.
- d. 선행사는 하나 이상의 종속을 가질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백화의 문법적 의존 성격들을 고려해 보자.

(41) \*Sarah will buy the old car and Hogan  $\emptyset$  sell the old motorbike.

( $\emptyset$  = would)

예문 (41)은 (40a)의 종속은 반드시 선행사를 취해야 한다는 특성에 관한

문장이다. (41)의 공백은 *would* 로 채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전의 접속사에서 선행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공백과 선행사 사이의 의미적 본질이 간단하지 않다는 관계는 매우 흥미롭다.

(42) 예제를 주목해 보면 DP의 항목들과 연결 되는 동사구는 공백화에 허가 되지 않는다. 동사구 생략이나 허사공백과 같은 생략적 과정과는 다르다.

(42) \*Sal is a forger of passport and Holly forges painting.  
(gapping)

(42)는 두 동사구 일치하지 않아 생략되거나 공백화 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선행사에서 의미적 의존성으로 보여 지는 공백화는 균형을 기울이지 않는다. (43)와 (44)의 예제는 공백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43) A: I can sing  
B: and I ∅ dance.

(44) (Context: James is going to tell Sarah that Sue likes him  
but Sarah already knows it and interrupts him)  
James: I have to tell you that Sue likes \_\_\_\_  
Sarah: you (\*me)

문법적 의존을 통한 생략 현상인지 담화에서의 간략한 표현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공백화로 인해 의미 전달에 착오를 가져온다.

공백화의 문법적 의존성은 화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45) A: Mary hurt.  
B: herself; I know

(40)의 두 번째 예문인 (40b)의 공백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살펴보자.

(46) a. \*Jane can eat the sandwich, Louise could drink a beer  
and Sue  $\emptyset$  try the hotdog. ( $\emptyset$ =can)

b. \*Jane will eat the bread and I think that Paul  $\emptyset$  drink the  
coke. ( $\emptyset$ =will)

공백화는 바로 앞의 선행사를 따라야 하지만 (46a)는 첫 번째 문장의 선행사를 따랐음으로 비문이 된다. 공백화는 하위 조항으로 내려갈 수 없는데 (46b)의 예문을 보면 접속사를 가지면서 종속절의 동사구 생략됨으로써 선행사가 일치하지 않아 의존성의 특징에 위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백화는 확실한 위치적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백과 선행사 사이의 관계는 훨씬 엄격하고, 동사구 삭제나 허사공백의 위치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동사구 삭제나 허사공백 둘 다 종속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47) 동사구 생략

a. Jane will eat the bread and I think that Paul will eat the  
bread too.

b. Jane will eat the bread because Paul will eat the bread  
too.

(48) 허사공백

a. ?Jane will eat the bread and I think that Paul will eat the  
fruit.

b. ?Jane will eat the bread because Paul will eat the fruit.

(40c)는 각각의 종속 고유의 선행사를 취해야 한다고 나타냈다. (49)는 동

사구 생략과 허사공백과 다소 차이가 나는 공백현상의 비문법적 예문이다.

- (49) \*My cousin can wash his t-shirt, my mother must iron her skirt and I  $\emptyset$  saw my trousers.  
( $\emptyset$ = can and must)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49)의 생략된 동사구 앞의 두 동사구의 선행사를 모두 취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공백화는 다시 이런 의미에서 동사구 생략이나 허사공백과 차이가 난다.

(50), (51)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예문이다.

- (50) Wendy is eager to sail around the world and Bruce is eager to climb Kilimanjaro, but neither of them can  $\emptyset$  because money is too tight.  
( $\emptyset$ =sail or climb)

- (51) ??Wendy should sail the English Channel and Bruce climb Whitney, but surely they won't  $\emptyset$  the Pacific or Kilimanjaro.  
( $\emptyset$ = sail or climb)

예문 (40)의 마지막 특성으로 선행사는 하나 이상의 종속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 (52) Alan will go to London, Richard  $\emptyset$  travel to France and Paola  $\emptyset$  visit Canada.  
( $\emptyset$ =will)

이러한 결론은 Hankamer에 의해 이전에 암시되었지만 공백과 선행사 사이 성분통어의 명백한 기여는 문법적 의존성에 의하여 공백화를 다뤘던 모든 노

력을 좌절시켰다.

## 5. Kirsten Gengel(2007)의 분석

### 5.1. 동사구 생략

동사구 생략은 구조의 생략된 부분 앞의 한정 조동사 유무에 의해 특정 짓게 된다. 또한 예문 (53)처럼 문장의 첫 부분에서 생략된 지점으로 거꾸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생략된 지점 바로 뒤에 문장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54)와 (57)의 예문들은 종종 동사구 생략 보다는 허사공백(Pseudogapping)으로 가정된다. 허사공백구조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고 있다..

(53) Because Pavarotti couldn't [vp, e], they asked Domingo to sing the part.  
[e] = sing the part

(54) John talked to Billon Tuseday but Mary didn't [e] until Wednesday.  
[e] = talk

(55) a. Mary met Bill at Berkeley and Sue did [e] too.  
b. Mary met Bill at Berkeley although Sue didn't [e].  
c. Charlie thinks that Mary met Bill at Berkeley, but Sarah knows that Sue didn't [e].  
a,b,c [e] = meet

(56) a. \*Sue didn't [e] but John ate meat.  
b. Because Sue didn't [e], John ate meat.

[e] = eat이

(57) I can't go back to Madison now, but I [e] next week.

[e] = go back

문장 내에 생략된 요소가 존재하는 생략 현상 중에서 동사구 생략과 관련된 인접 현상으로 공백화, 제거(stripping)등을 나열할 수 있다. 또한 Warner(1995)는 조동사 뒤에서 생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하위 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sup>4)</sup>을 유사하게 지킨다는 점에서 허사 공백화(pseudogapping)를 동사구 생략과 가장 밀접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한편 Warner는 유형간의 관계에서 볼 때 동사구 생략을 추출(extraction)과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분석한다.<sup>5)</sup> 그러나 위에 열거된 인접 현상들이 동사구 내에서 핵어 또는 보충어가 생략되는 부분적 생략인 점에 반해서, 동사구 생략은 동사구의 핵어인 동사와 그 보충어가 동시에 생략되는 현상이며,<sup>6)</sup> 이러한 특징이 동사구 생략을 다른 생략과 구분 짓는 분포적 특징이 된다.

## 5.2. 허사공백

동사구 생략과 관련 지어서 허사공백 현상을 기술해 보고 그것의 분포에 관한 일반화와 동사구 생략과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자. 예문 (5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허사공백 특징은 생략 지점 앞에 한정 조동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대조적 소재로 생략 지점을 직접 후행하는 DP, PP을 가진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 대조적 잔재는 공백화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

4) 이동변형 적용 시 하나 이상의 경계 교점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

5) Warner의 유형 위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사구 생략은 조동사 뒤에서 일어나는 반면 추출은 그렇지 않다.

6) Warner는 동사구 생략이 반드시 하나의 구성소(constituent)를 이루는 동사와 보충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을 보여준다. 주로 there-구문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58) He realized he could make more money in some other position than he can  $\emptyset$  farming.

Levin은 일반 허사공백(regular Pseudogapping), 사역 동사 허사공백(causative Pseudogapping), 비교 허사공백(comparative Pseudogapping)을 구별하였다. 사역 동사 허사공백은 전형적으로 bother, interest, scare와 같은 행위격 경험자 사역동사와 같이 나타나며 더 정확히 말하면 annoy, embarrass, fascinate, surprise와 같은 경험자 대상을 취하는 정신동사(psych verbs), 그리고 knock NP out, wake/keep NP up, or take NP X long to V 처럼 감정이 없는 사역 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또 다른 동사들과 나타난다.

사역 동사 허사공백에서의 잔재는 오로지 생물이나 인간 그리고 종종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대명사이다. (59)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사공백은 때때로 일반적인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59) A: Cream rinse makes my hair get oily faster.

B: It (usually) does  $\emptyset$  mine  $\emptyset$ , too.

(59)나 (60)의 예문처럼 비교 허사공백은 공백 현상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유형이다.

(60) It makes me feel as bad as it does  $\emptyset$  you  $\emptyset$

때때로 공백화 구성은 (61)에서 처럼 대등구조에서는 비문법적이나, (62)에서 처럼 비교 문법 구조에서는 완벽하게 문법적이다.

(61) \*You porobably just feel relived, but I do  $\emptyset$  jubilant.



(62) I probably feel more jubilant than you do  $\emptyset$  relieved.

더 선호하는 구조인 공백화는 (63) 에서 처럼 비교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Levin은 비교 허사공백이 더 쉽게 받아 들여 진다고 제안했다.

(63) a. Lary loses as many pens as Harry does  $\emptyset$  pencils.

b. ?\*Lary loses as many pens as Harry  $\emptyset$  pencils.

일반적으로 Levin이 주목했던 것처럼 구조에서 대조 존재가 분명해 지면 허사공백은 더 받아들여지기 쉽다. 허사공백에는 더 선호되는 동사의 부류가 있는 반면 절대적으로 배제되어 진 것처럼 보이는 동사들도 있다. 이런 동사들은 smell, taste, sound, look과 같은 지각동사 seem, appear, turn out과 같은 상태 동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동사와는 대조적으로 own, contain, constitute와 같이 보어 명사구를 요구하는 상태 동사의 허사공백이 더 허용된다. 그 양식은 (64), (65)에서 설명되고 있다.

(64) a. ?This bottle might contain sulfuric acid, but it shouldn't  $\emptyset$  copper sulfate.

b. ??This bottle might contain sulfuric acid, but it doesn't  $\emptyset$  copper sulfate.

(65) A: These leeks look/smell/taste terrible.

B: a. \*Your steak will  $\emptyset$  better

b. \*The onion rings do  $\emptyset$ even worse.

### 5.3. 허사공백과 동사구 생략

Levin(1986)을 인용한 Johnson(2003) 은 (66)에 설명된 것처럼 동사구

생략과 허사공백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동사구 생략은 선행하는 동사구에서 가능하며 그 점에 있어서 허사공백은 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 (66) a. Although it doesn't always  $\_$ , it sometimes takes a long time to clean the hamster's cage.  
b. ??Although it doesn't  $\_$  Sally, it takes Korean a long time to clean the hamster's cage.

Johnson(1996)은 동사구 생략이 첫 번째 접속사에서 허가되어지는 반면 허사공백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67)의 예문을 제공했다.

- (67) a. Although Holly doesn't [e], Doc eats rutabagas.  
b. \*Although Mag doesn't [e] eggplants, Sally eats rutabagas.

게다가 Johnson과 Lasnik(1995)이 지적한 것처럼 (68)의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허사공백은 전치사구의 일부만 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 (68) \*Sally will stand near Mag, but he won't [e] Holly.

추가로 비문법으로 제시된 (69)의 예문처럼 허사공백은 명사구 일부만 이동할 수 없다.

- (69) \*While Holly didn't discuss a report about every boy, she did [e] every girl.

(69)의 예문과는 대조적으로 동사구 생략은 (70)의 맥락에서는 문맥상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Lasnik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현상을 아직 입증할 수는 없다.

- (70) a. Sally will stand near every woman that you will [e].  
b. Hooly discussed a report about every boy that Berman had [e].

### C. 요약

위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Kirsten Gengel은 동사구 생략과 공백화 현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론에서 공백화 현상이 다소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Daniel Hardt는 통사적으로 접근해 동사구와 선행사가 상호 보완적임을 설명하였고, 의미적 접근으로 중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ric Potsdam은 동사구 형태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나타냄으로서 동사구 사이에 형태적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함을 밝혔고, A.C. Hernandez역시 공백화가 문법적 의존성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다양한 접근으로 학자들 간의 이론을 분석하였지만 아직은 서로 다른 견해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동사구 생략의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IV. 동사구 생략 유형

##### 1. 동사구 생략

(71) a. Ellsberg was arrested by the FBI, and Fonda was arrested by the FBI, too.

b. Ellsberg was arrested by the FBI, and Fonda was, too.

위의 (71a) 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사구를 생략함으로써 (71b)의 문장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선행구조의 동사구 요소를 생략하는 효과를 동사구 생략 규칙 (VP deletion (VPD) Rule) 이라 한다.

어떤 동사구가 선행하는 동사구와 동일할 때 동사구 삭제가 일어나는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72) a. Tom can paint fences, and Huck can paint fences, too.

b. Tom can paint fences, and Huck can paint  $\emptyset$ , too.

(73) a. Mae can't help you, but I can help you.

b. Mae can't help you, but I can  $\emptyset$ .

위의 경우처럼 각 예문의 (a)에 대한 동일한 동사구 구조가 생략되어 (b)의 문장이 도출 되었지만 동일한 동사구 성분 구별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Kuno(1975)는 동사구 삭제의 제약으로써 동사구 최종 조건(VP-final condition)을 주장하였다.

(74) A : Did you persuade John to do it?

B : a) Yes, I persuaded him to do it.

b) Yes, I persuaded him to  $\emptyset$ .

(75) A : Did John hit mary with a stick or with a belt?

B : a) He hit her with a belt.

b) \*He did  $\emptyset$  with a belt.

(76) A: Why did John want to go to Paris?

B: He wanted to  $\emptyset$  because mary was there.

위의 예문에서 (74)b가 문법적인 것은 동사구 마지막(VP-final)에서 생략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75b)가 비문인 것은 생략이 동사구의 마지막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Non VP-final)

그러나 (76b)의 대화에서 생략이 동사구 마지막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because* 절이 *go there* 의 수식어가 아니고 *wanted* 의 수식어이므로 동사구의 마지막 지점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문법적인 것이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Kuno는 동사구 삭제의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77) 동사구 삭제의 제약 (The constraint on VP deletion)

동사구 삭제는 오로지 동사구의 최종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적용한다.

동사구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의 예를 더 살펴보자. 동사구 생략은 다음과 같이 시제가 없는 절(tenseless clause)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78) Betsy wanted to go home, but Peter didn't want to  $\emptyset$ .

( $\emptyset$ =go home)

그리고 동사구 삭제 종속절이나 담화중의 화자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79) a. John hit a single after Sandy did  $\emptyset$ .( $\emptyset$ =hit a single)

b. The fact that Tom said he didn't break the window

made me wonder who did  $\emptyset$ .( $\emptyset$ =break the window)

- (80) a. A: Who hit the homerun?  
B: Tom did  $\emptyset$ .( $\emptyset$ =hit the homerun)  
b. A: Why did you go home?  
B: Because John did  $\emptyset$ .( $\emptyset$ =go home)

동사구 생략은 Ross(1967)의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sup>7)</sup>과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sup>8)</sup>을 어기고 (80), (81)처럼 관계절에서도 적용된다.

(81) John didn't hit the homerun, but I know a man who did  $\emptyset$ .

(82) That Tom won the batting crown is not surprising, but that Peter didn't know he did  $\emptyset$  is indeed surprising.  
( $\emptyset$ =win the batting crown)

동사구 생략에 있어서 동일성 문제는 동사의 접사 (Verbal Affix)에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없으나 Quirk, et. al의 동사구 생략은 일반적으로 접사의 위치까지는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83) a. John understands the situation and surely Peter should  $\emptyset$ .

---

7)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 머리명사를 둔 명사구에 의해 지배받는 문장내에서는 어떤 요소도 변형규칙에 의해 명사구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8)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 : 만일 어떤 S 마디가 다른 S 마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NP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지배당하는 S 마디로부터 어떤 요소도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 =understand the situation)

b. Bob entered the competition and Paul may ∅.

(∅=enter the competition)

동사구 생략에 의해 접사의 동일성(Affixial identity)을 무시되고 적용되는 동사구 생략 특성에 대해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동태의 동사구이므로 예문 (84)는 동사구 생략이 불가능하다.

(84) \*Paul denied the charge, but the charge wasn't ∅ by his friends.(∅=denied)

다음으로 동사구 생략에 있어서 조동사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가지고 동사구 규칙을 적용하여 보자.

(85) a. Sam will be teaching a class, and Bill will be teaching a class, too.

b. Sam will be teaching a class, and Bill will, too

(85a)의 예문에 동사구 구조를 설정하면 (86)이 된다.

(86) Sam will be VP<sub>1</sub> (teaching a class) and Bill will be VP<sub>2</sub> (teaching a class).

(86)의 예문에서 VP<sub>1</sub> =VP<sub>2</sub> 이므로 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어 동사구 삭제 규칙을 적용하면 (87)이 된다.

(87) Sam will be teaching a class, and Bill will be, too.

(85a)에 동사구 삭제 규칙을 적용하여 얻은 (85b)는 *will* 만 남아있는 반면

에 (86)의 생략문에는 *will be* 까지 남아 있는데 Akmajian(1975)은 (86)에 다시 조동사 삭제 규칙이 적용되어 (87)이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Ross는 조동사를 주 동사로 분석하고 동사구 삭제를 일소규칙(A wipe-out Rule)이라 하여 조동사와 동사 모두를 삭제하지만 (88c)와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되어 조동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88) a. They said that Tom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might have been singing.
- b. They said that Tom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might  $\emptyset$ .
- c. \*They said that tom might have been singing and so he  $\emptyset$ .

## 2. 굴절 동사구 생략

통사론으로 접근 기능은 파생(derivation)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동태로 간주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둬으로써 복잡도가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통사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검색 공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Chomsky에 의한 최소이론으로 결과에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주장들이 동시에 발생했다

(89) 파생어 단계로 진행

(90) 보어의 핵이 다른 핵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접근을 멈춘다.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차후부터 PIC)

(91) 파생어는 PIC에 의해 규정된 LF(Logical Form)와 PF (Phonological Form)경계의 주기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들이 어디에 발생하는지 동사 생략 구조를 통해 분석에 대한 통사론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동사구 생략 현상과 관련성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VP생략의 경우 V인) 페이즈 핵어는 그것의 보어 삭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방법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동사구 생략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점들 간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누락된 듯한 동사구 상태를 염려한다는 것이다. 생략 위치에서 가능한 wh-적출 (wh-extraction)은 Chomsky & Lasnik(1993)과 추가로 최근의 Merchant(2004)에 의해 옹호된 PF-삭제과정으로서 생략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사구 생략은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완전히 연결된 통사적 구조의 PF 삭제를 포함한다. 그렇게 삭제된 동사구는 실제로 좁은 통사적 파생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

두 번째 질문은 생략된 부분과 동사구의 선행사 사이의 근본적인 주체성을 염려한다. 만일 생략된 구조의 수렴에 대한 일종의 의미론적 유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 필요로 한 것들이 이것이 전부인지의 파악해야 한다. Lasnik(1999)은 엄격한 PF의 형태학적 정체성 어느 한쪽도 요구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관련 조건 (92)에 명시된 바와 같다

(92) 삭제된 구성요소는 회복되지 않은 해석 기능을 포함할 수 없다.

(92)는 형태소와 접사 사이의 정확한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9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영어 -ing은 첫 번째 절에 속하며, -ed는 두 번째 절에 속한다.

(93) a. Mary will leave and John already has

b. \*John won't enter the competition, but Peter is

완료시제의 기본 특징 -ed는 문맥적으로 (93a)에서 회복 가능한 반면,

(93b)는 -ing의 진행형이 아니다.

(94)의 예문은 언어에 대한 권리를 예측하게 만들고 진행의 표시가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94)는 생략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은 구와 핵어의 선천적인 특성화 방법을 보여준다.

(94) Only phase heads can trigger deletion/non-pronunciation of their complement

동사구 가장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통사적 목적어들은 바로 통합되고 가장 자리에서 바로 합병된 요소들은 동일성 조건 (Identity Condition)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주제 논항의 경우이며 우리는 또한 일부 언어에서 시제와 논항의 열거를 주장한다. 무엇에 대한 요소가 동사의 보어 및 동사 구문의 가장자리 인상을 초래하는가? 만일 그것들이 초점화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반화는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성 조건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 진다. 초점은 동일성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등위구조의 두 구성 요소 간 집중화 된 구는 별개로 예문(95)에서 명백히 다루고 있다.

(95) NUTS, she likes, but ALMONDS, she doesn't.

이 현상은 생략과 관련된 동일성 조건의 특성과 핵어 이동의 적합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96) 역시 수식어의 다양한 종류의 분포상, 해석상 속성에 관한 흥미로운 가설을 만들었다. 동사는 동사구 생략을 나타내는 언어 든 아니든 동사구에서의 핵어 이다. 동사 시제의 효과는 동사구가 완전해 질 때 굴절된 양식은 형태적으로 완벽하다.

(96) 주어진 언어에서 동사구 생략의 유용성 여부는 굴절된 동사 형식이 형태적으로 완벽한지에 의존한다.

결론짓자면 언어 굴절 동사 형태의 파생어 역사와 동사구 생략 언어의 유용성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 결과가 옳다면 형태적 중요성은 동사구 생략의 일부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 3. to 부정사의 동사구 생략

to 부정사(to infinitive)도 조동사처럼 동사구 생략을 허가할 수 있다.

(97) a. I know I should go to the dentist's but I just don't want  
to [VPe.]

[VP e] = [go to the dentist's]

b. \*I know I should go to the dentist's but I just don't want

[IP PRO [I' e]]

[IP e] = [PRO go to the dentist's]

(97a)에 제시된 것처럼, to 부정사는 동사구 생략을 허가한다. 그러나 (97b)처럼 to가 동사구와 함께 생략 된다면, 동사구 생략은 허가받지 못한다.

모든 to 부정사가 동사구 생략을 허가 하는 것은 아니다. Zwicky(1981), Lobeck(1995) 그리고 Zagana(1988)에 의하면 (98)처럼 to 부정사 절이 모문절 동사의 보어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동사구 생략을 허가 할 수 있지만, (99)처럼 to 부정사의 모문절 동사의 부가어 기능을 하는 경우는 동사구 생략을 허가할 수 없다.

(98) a. Mag Wildwood wants to read Fred's story and I also want  
to [VP e].

[VP e]= [read Fred's story]

b. You shouldn't play with rifles because it's dangerous to

[VP e][VP e]= [play with rifles]

(99) a. \*Mag Wildwood came to read Fred's story and I also came to [VP e].

[VP e]= [read Fred's story]

b. \*You shouldn't play with rifles because to [VP e] is dangerous.

[VP e]= [read Fred's story]

굴절이 비정형절인 to 부정사 의 경우에는 아래 (100)을 만족하여야 한다.

(100) 동사구 생략의 허가 조건(비 정형절의 경우)

비 정형절의 to 부정사가 동사구 생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to 투사 범주 IP는 Y에 의해 직접 의미역 표시(direct  $\theta$ -making)가 되어야 한다.

#### 4. 부정어 not의 동사구 생략

Lobeck(1995)와 Potsdam(1997)은 아래 (101)처럼 부정어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101) a. Mary will leave but John will not [VP e].

[VP e]= [leave]

b. John is leaving but Mary is not [VP e].

[VP e]= [leaving]

c. John left but Mary has not [VP e].

[VP e]= [left]

부정어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X가 축약형이면 동사구 생략이 가능하지 않지만, (102b)처럼 영 동사구 앞에 부정어 not이 있으면 동

사구 생략이 가능하다.

(102) a. John is leaving but Mary's [VP e] too.

[VP e]= [leaving]

b. John is leaving but Mary's not [VP e] too.

[VP e]= [leaving]

둘째, 비 정형절의 to 부정사 절이 직접적 의미역 표시를 받지 않는 모문절의 주어 또는 부가어 기능을 하는 경우는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지 않는다. (103)의 예문이 그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Lobeck의하면 to 부정사절 앞에 부정어 not이 존재하면 정문이 된다.

(103) a. \*Mag Wildwood came to read Fred's story and I also came to [VP e].

[VP e]= [read Fred's story]

b. \*You shouldn't play with rifles because to [VP e] is dangerous.

[VP e]= [play]

(104) a. Mary wants to get a raise, and for her not to [VP e], she'd have to refuse to be evaluated.

[VP e]= [get a raise]

b. Mag Wildwood came to introduce the barkeep but I came (precisely) not to [VP e].

[VP e]= [introduce the barkeep]

셋째, Potsdam(1997)은 조동사 should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동사구 생략은 불가능하다고 나타냈다. 그러나 (105)처럼 조동사 should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동사구 앞에 부정어 not이 있으면 동사구 생략은

가능하다. (106)의 예문 not이 동사구를 선행하고 있으므로 정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용함을 알 수 있다.

- (105) a. \*Kim needn't be there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order organizers [I' ∅ [VP e]].  
[VP e]= [need be there]
- b. \*Ted didn't want to vacation in Hawaii but his agent suggested that he [I' ∅ [VP e]].  
[VP e]= [want to vacation in Hawaii]
- c. \*We think that Mary should present her case to the committee and we ask that Bill [I' ∅ [VP e]].  
[VP e]= [present his case to the committee]

- (106) a. A: Should we wake Dad?  
B: No! It's absolutely imperative that you not [VP e].  
[VP e] =[wake Dad]
- b. Kim needs to be there but it is better that the order organizers [VP e].  
[VP e] =[need to be there]
- c. Ted hopes to vacation in Liberia but his agent recommended that he not [VP e].  
[VP e] =[hope to vacation]
- d. We think that Mary should present her case but we will ask that Bill not [VP e].  
[VP e] =[present her case]
- e. A: Should I attend the meetings?  
B: I suggest that you not [VP e].  
[VP e] =[attend the meetings]

또한 부정어 not은 동사구 생략과 관련하여 추가의 양상을 나타냈다. not은 한정 조동사(finite auxiliary verb) 뒤에 놓일 때 생략되는 동사구를 선행할 수 있지만 비 한정 조동사(infinite auxiliary verb) 뒤에 놓일 때에는 생략되는 동사구를 선행할 수 없다.

(107) a. Kim said he could have heard the news, but Lee said that he could not ∅.

b. \*Kim said he could have heard the news, but Lee said that he could have not ∅.

(107a)에서 not은 한정 조동사 could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에 생략된 동사구가 나타나면서 정문이 된다. 한편 (107b)에서는 not이 비 한정 조동사 have 뒤에 위치하는 경우는 동사구 생략 결과 비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ltin(1993)은 동사구만이 아니라 서술어 기능을 하는 형용사구도 동사구처럼 생략이 가능하다고 나타냈다. 그러나 (108a)에서 보듯이 형용사구의 생략을 허가하는 조동사가 없으면 생략을 허가받지 못하지만, (108b)처럼 서술어 기능을 하는 형용사 앞에 부정어 not이 있으면 형용사구 생략은 가능하다.

(108) a. \*I consider Bill intelligent and I consider Sally [Ap e].  
[Ap e]= [intelligent]

b. I consider Bill intelligent and I consider Sally not[Ap e].  
[Ap e]= [intelligent]

따라서 부정어 not의 존재는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된다고 본다. Potsdam은 모든 부정어가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정어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문 부정어(sentence negation)이어야 한다.

- (109) a. Some of the student have been studying but some have not [VP e].  
 [VP e]= [been studying]
- b. Sara said she could hear the announcement but lee said that he could not [VP e].  
 [VP e].= [hear the announcement]
- (110) a. \*Some of the student have been studying but some have been not [VP e].  
 [VP e]= [been studying]
- b. \*Jo said they could have heard the news but Lee said they could have not [VP e].  
 [VP e]= [heard the news]

(109)의 부정어 not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문 부정어이므로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지만 (110)의 부정어는 동사구만은 부정하는 구성소 부정어 (constituent negation)이므로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어 not의 동사구 생략을 허가하는 조건은 다음(111)과 같다.

(111) 동사구 생략의 허가 조건(부정어 not의 경우):

부정어 not이 동사구 생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굴절이 음성적으로 실현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다. 그리고 정형절 또는 비 정형절이거나 상관없이 부정어구가 굴절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 5. 조동사에 의한 동사구 생략

동사구 생략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이 생략된 동사구사 조동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112) a. John can dance and Sandy can  $\emptyset$ , too.  
 b. John did dance and Sandy did  $\emptyset$ , too.  
 c. John has danced and Sandy has  $\emptyset$ , too.  
 d. John was dancing and Sandy was  $\emptyset$ , too.

위의 예문은 법조동사(modal auxiliary), have, be등의 조동사가 모두 생략된 동사구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아래의 예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 동사 뒤에는 생략된 동사구가 위치할 수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113) a. \*John got arrested by the CIA, and Sandy got  $\emptyset$ , also  
 b. \*First Sandy began reading Freud, and then John began  $\emptyset$ .  
 c. \*John considered joining the navy, but Sandy never considered  $\emptyset$ .  
 d. John wanted to go and Sandy wanted  $\emptyset$ ,too

위의 예문에서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조동사와는 달리 보충어 생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동사는 시제를 나타내는가의 여부와 관련 없이 보충어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예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비 시제 조동사 to, 또는 다른 조동사의 보충어로 나타나는 조동사가 각각 동사구 생략을 허용한다.

- (114) a. John is to leave and Sandy is to  $\emptyset$ , also.  
 b. John must have been dancing and Sandy must have been  $\emptyset$ , too  
 c. John must have been dancing and Sandy must have  $\emptyset$ , too

d. John must have been dancing and Sandy must  $\emptyset$ , too

(114a)는 비 시제 동사 *to* 뒤에, (114b-c)는 다른 조동사의 보충어이므로 비 한정 형태를 갖는 조동사 뒤에 각각 생략된 동사구가 위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은 조동사가 이끄는 동사구들이 엄격한 형태의 동일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의 세밀한 조사가 기존의 이론을 더 복잡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만일 조동사가 이끄는 동사구들 사이에 형태적 동일성이 존재한다면 생략은 당연히 허용될 것이다. 반면에 형태적으로 선행사가 동일하지 않은 조동사에 의해 동사구가 핵화 되었다면 선행사가 한정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경우가 나타난다. 한정 조동사에 의해 선행사가 핵화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명백히 비문법이 된다. (115)는 조동사로 인해 비문이 된 예제이다.

- (115) a. \*I am confused about ellipsis and, after reading this paper, you will be confused about ellipsis too.  
b. \*Mary is an auto mechanic and her daughter wants to be an auto mechanic also.  
c. \*Chris has been to Rome and his wife might have been to Rome as well.  
d. \*Some of the election results have been announced but the winner can't have been announced yet.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예문들도 있지만 (116)예문처럼 대부분이 이론에 수용된다.

- (116) a. John is being examined but Jack really should be examined also.  
b. He might be attending AA sessions, I know his mother

has been attending AA sessions.

c. John may be questioning our motives but Peter hasn't been questioning our motives.

d. [Snoopy talking to Woodstock, Peanuts cartoon]

You and I are alot alike... Just a common bird and a common dog. Of course, if we had wanted to be great, we could have [VP been great] . . .But we didn't need to be great.

(115)의 비 문법 예문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수용성이 높은 (116)의 예문들은 원래의 형태로 기록하는 모든 이론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이것은 주 동사 삭제 데이터의 사례로 보여진다. 아래 (117)의 예제는 생략된 동사구가 조동사에 의해 핵화 되었을 때 생략의 더 정확한 패턴을 요약한 것이다.

(117) 생략에 속하는 조동사의 행동양식

조동사에 의해 된 동사구 생략의 경우, 선행 조동사가

- i) 동일한 형태 양식일 경우 생략은 완전히 받아들여 지며
- ii) 다른 비 정형 형태 양식일 경우 생략이 허용되며
- iii) 정형일 경우 생략은 가능하다.

## V. 맺는말

본 연구는 영어의 동사구 생략과 공백화 현상에 대한 제약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들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동사구의 생략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학자들간의 이론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사구 생략과 허사 공백사이의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각각의 이론을 분석하였고, 생략된 동사구의 굴절된 형태를 파악하여 생략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동사구 생략에 관한 의미론적 규칙을 설명하였다. 또한 형태적 동일성에 의거하여 생략에 관한 동사적 형태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였고, 문법적 의존으로서 간주되는 공백화 현상에 관해 다섯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다뤘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생략의 유형들을 살펴 보았다. 동사구 삭제는 동사구의 최종에서 일어난다는 기본적인 동사구 규칙을 기저로 접사와의 동일성을 생략 특성에 적용시켰고 통사적 분석으로서 굴절로 인해 삭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피고, 생략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사구 생략의 유용성은 굴절 형태가 완벽할 때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to 부정사와 생략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to 부정사가 생략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예문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부정어 not 역시 부정어구가 굴절에 의해 선택 되어졌을 때 생략을 허용한다는 이론을 생산했다. 마지막으로 생략은 조동사가 이끄는 동사구들이 엄격한 형태의 동일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생략에 속하는 조동사가 동일한 형태에서 비 정형일 경우에 생략이 가능함을 도출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동사구의 생략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드러진 주요 유형을 제시하여 동사구 생략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참고문헌

- 이훈형. (1987). 영어의 동사구 생략에 관한 연구.
- 조희정. (2005). 영어의 생략 현상과 유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Ackema, P. Szendroi, K. 2002. Determiner sharing as an instance of dependent ellipsis. *The Journal of Comparative and Germanic Linguistics* 5, 3-34.
- Akmajian, Adrian and Tom Wasow. (1975). The Constituent Structure of VP and AUX and the Position the Verb BE. *Linguistic Analysys* 1 :205-245.
- Baltin, Mark. (1987). Do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exist? *Linguistic Inquiry* 18: 579-95.
- \_\_\_\_\_ (1993). *Negation and Clause Structure*. Ms. New york University.
- Bouton, L. (1970). Antecedent-contained Pro-forms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 The MIT Press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Gengel, K. (2006). Auxiliaries, Contrast and Ellipsis. *Proceedings of the CamLing Conference*, C. Chang, E. Dugarova, I. Theodoropoulou, E. Vilar Beltran and E. Wilford (eds.), Cambridge, England.
- \_\_\_\_\_ (2007). *Focus and Ellipsis: A Generative Analysis of Pseudogapping and other Elliptical Structures*. Diss. Universität Tübingen, 2007 – elib.uni-stuttgart.de
- Hardt, Daniel. (1993). *Verb Phrase Ellipsis: Form, Meaning and*

- Processing*.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ernandez, A.C. (2006). *Gapping as a syntactic dependency*. *Lingua* 117 (2007) 2106-2133
- Jeperson, O. (199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Allen and Unwin
- Jackendoff, Ray. (1971). Gapping and Related Rules. *Linguistic Inquiry* 2 :21~35.
- \_\_\_\_\_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 MIT P.
- Johnson, Kyle. (1996/2003). In search of the middle field.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ankamer, Jorge and Ivan Sag. (1976). Deep and Surface Anaphora. *Linguistic Inquiry* 7. 391-426
- Koster, J. (1987). *Domains and Dynasties*. Foris, Dordrecht.
- Kuno, Susumu. (1975). Conditions for Verb Phrase Deletion  
*Foundation of Language* 13 : 161~175.
- Lasnik, Howard, (1993). Lectures on minimalist syntax. *University of Connecticu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MITWPL,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MIT, Cambridge, Mass.
- \_\_\_\_\_ (1999a). Pseudogapping Puzzles. *Fragments: Studies in Ellipsis and Gapping*, 141-174: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b). *Minimalist Analysis*. Massachusetts: Blackwell.
- Lasnik, Howard. and Mamoru,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235-89.
- Levin, Nancy. (1986). *Main-Verb Ellipsis in Spoken English*.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Lobeck, Anne. (1995).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VP Ellipsis and The Minimalist ProgramL Some Speculations and Proposals. *Fragments: Studies in Ellipsis and Gapping*, 98–123:Oxford
- Merchant, J. (2004). *Fragments and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661–738.
- Neeleman, A. van de Koot, H. (2002). The configurational matrix. *Linguistic Inquiry* 33, 529–574.
- Neijt, A. (1979). *Gapping. A Contribution to Sentence Grammar*. Foris, Dordrecht.
- Potsdam, Eric. (1996a). English verbal Morphology and VP Ellipsis. *In Proceedings of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353–368. Graduate Linguistic Student Association, McGill University.
- \_\_\_\_\_ (1996b). *Syntactic Issues in the English Imperative*. PhD. diss., University of Santa Cruz.
- \_\_\_\_\_ (1997). Neg P and Subjunctive Complement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28: 53–541.
- Pullum, Geoffrey and Deirdre Wilson. (1977). Autonomous Snytax and the Analysis of Auxiliaries. *Language* 53. 741–788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 Ross, John Robert. (1967). *Constraints on Variabels in Syntax*. PhD. Diss. MIT.
- \_\_\_\_\_ (1969). Guess Who? Papers from *the Fif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uc Society*. Eds. R. Binnick, et al. Chicago : Chicago Linguistuc Society. 251~286
- Sag, Ivan.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PhD. Diss. MIT.
- Sweet, H. (1955). *A New English Grammar : Logical and Histoorical*.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Szendroi, K. (2001). *Focus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PhD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 Warner, Anthony R. (1985). *The Structure of English Auxiliaries : A Phrase Structure Grammar*.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Williams, Edwin S. (1977). Discourse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9:101-139.
- Zagona, K. (1988). Proper government of antecedentless VP in English and Spanish.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6: 95-128
- Zwicky, A. (1981). Stranded *to* and Phonological Phrasing. *Linguistics* 20: 3-58.